

## 청년희망대화⑤ **더불어민주당 양대노총 청년노동자 타운홀미팅 노동정책 간담회** **‘청년노동자가 묻고, 민주당이 답하다’**

□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청년희망대화’ 다섯 번째로 더불어민주당-양대노총 청년노동자 타운홀미팅 노동정책 간담회 ‘청년노동자가 묻고, 민주당이 답하다.’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정부가 MZ라는 용어를 앞세워 청년노동자들을 나누고 반목시켜 사실상 권리실종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일자리현장의 실태, 구직·채용·재직·퇴직 과정상의 노동문제에 대해 청년노동자들이 직접 제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 일시 : 6월8일(목) 10시00분~11시40분

\* 장소 :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

□ 오늘 간담회에는 이재명 당대표,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을 비롯한 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8명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의 각 분야의 청년노동자 8명\*\*이 참석하여, 청년노동자들이 직접 겪고 있는 열악한 노동현실과 개선해야할 정책과제를 제기하고,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제기된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을 소개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 김영진 · 노웅래 · 우원식 · 윤건영 · 이수진 · 이학영 · 전용기 · 진성준 국회의원

\*\* (한국노총) 이병화 코엔서비스노조 위원장, 이현정 금융노조 대외협력부장, 최지혜 세브란스노조 조합원, 박준용 안랩노조 조합원 (민주노총) 제치성 건설노조 경기지부 청년위원장, 김재현 공무원노조 2030청년위원장, 전승혁 전교조 청년부위원장, 안시영 특성화고 노조 서울지부장

□ 이재명 당대표는 청년 노동자를 만나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며 최근 윤석열정부의 건설노조 등 노동탄압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가 노동을 존중하지 않고 노동을 억압하면서 어떻게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또한,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청년노동자를 위한 노동정책이 단순히 청년세대만을 위한 정책일 수 없고,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직결된 문제임을 확인하고, 그 현실을 개선해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간담회에서 청년노동자들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제안을 하였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청년노동자들의 제안이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후속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 **(정의로운 노동전환)** 이병화 코엔서비스노조 위원장은 한국남동발전의 자회사에 근무하면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제안하였고, 이수진의원은 ‘정의로운 노동전환지원법’ 을 적극 추진하고, “산업부와 노동부 등 정부에 발전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을 협의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하겠다” 고 답했다.
- **(중대재해 및 산재예방)** 제치성 건설노조 경기지부 청년위원장은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현장의 개선에 건설노조가 그간 노력해 왔으나 윤석열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으로 작금의 현실이 암담하다며 힘이 되어 달라 제안하였고, 노웅래의원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뿐 아니라 중대재해로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는데 정부가 모든 노동문제를 노조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막고 중대재해 예방 방법을 강구하겠다 답했다.
- **(청년공무원노동자 현실개선)** 김재현 공무원노조 2030청년위원장은 청년공무원의 급격한 자살·퇴사율증가의 원인과 대책을 제기하며 ▷공무원임금 정액인상 ▷악성민원 근본대책 마련 ▷공무원인력확충이 필요하다 제안하였고, 진성준의원은 ▷9급 공무원의 낮은 임금 ▷악성민원 ▷과다업무에 대하여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 환기하고 특히 공무원의 과다업무가 일상화되지 않도록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 답했다.
- **(노동현장의 불평등한 현실)** 이현정 금융노조 대외협력부장은 금융산업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 사전단계에서 성비를 차등적으로 지정하거나 채용 이후 유리천정 등 불평등을 겪고 있어 이의 개선을 제안하고, 김영진의원은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개정해 “채용 및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성차별과 청년이 느끼는 불공정 등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답했다.
-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전승혁 전교조 청년부위원장은 노동인권교육은 직업계고 학생들만이 받는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초등학교 수업시간부터 노동교육이 이뤄질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개정 등을 제안하고, 전용기의원은 “선진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교육을 배우고 있다” 며 노동교육의무화 관련법을 발의하였고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노조와 함께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겠다 답했다.

- (장시간 노동 및 과로사방지) 최지혜 세브란스노조 조합원은 현재 세브란스병원에서 시범운영중인 주4일제에 직접 참여하면서 변화된 현실을 소개하면서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제안하였고, 이수진의원은 우리사회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극복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을 발의하였으며 주4.5일제, 또는 주4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간호조무사 실습생 보호) 연시영 특성화고노조 서울지부장은 올해 9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앞두고 자격취득전 의료기관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데 실습이라기 보다는 부족한 일손을 메꾸는 현실을 지적하며 간호조무사 실습생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학영의원은 “실질적 노무를 제공했다면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정신적·육체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며, 간호조무사 실습이 보다 내실있게 이뤄질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포괄임금제 근절) 박준용 안랩노조 조합원은 포괄임금제에 의해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댓가 없이 근무하고 있고 어떤 회사 경영진도 선의로 포괄임금제를 없애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에 반드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우원식의원은 “포괄임금제는 청년과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공감하는 위라벨 파괴와 일한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불공정의 상징” 이 되었으며, 법안의 발의자로서 “포괄임제를 금지하는 공짜노동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고 밝혔다.

2023. 6. 8.(목)



정책위원회 의장 김민석